

중기 수출역량 강화 · 활력 제고

전북중기청, 19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0년 제3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바우처를 발급해 내수·수출중소기업이 규모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약 346억원 규모로 1천여 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하며, 수출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혁신 성장과 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업을 전략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용을 유지·확대한 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 협력사업인 '자상한

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남우 청장은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수출 내공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마케팅 및 기업 생존 전략 수립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19일까지이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9일 국민연금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의 임직원들이 익산역에서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억'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기억예금 판매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감사 그리고 기억예금'을 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감사 그리고 기억예금'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 및 유해 발굴사업 홍보를 위해 출시했으며, 9일부터 7월 17일까지 1천억원 한도로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1년, 1인 1개좌, 3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며, 농협은행 큰만족실세예금 1년 기본금리에 특별우대금리 0.55%를 더해 이자가 지급된다.

'감사 그리고 기억예금'은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과 농협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고액 중 700여명을 추첨해 온라인 농산물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구강보건의 날'

기념 건강증진 행사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8일과 9일 양일간 치과병원 1층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영구치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구치(어금니)의 '구'를 수치 화해 6월 9일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채로 진행됐으며, 내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방법과 혀 클리너 등 구강위생용품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는 구강위생용품을 증정했다.

또한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는 지역 내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강검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 확산

국민연금공단, 주민 안전의식 제고 위한 캠페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마스크 2000매 배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장지웅)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등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

하며, 타지역 이동객이 많은 익산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마스크 2,000매와 홍보용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박정배 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이 사회적인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아이들의 꿈과 희망 키우는데 도움 되길'

전은, 완주 화산면에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8일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화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0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고현상 완주군청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완주군 정철우 부군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화산지역아동센터 오미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농촌지역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인 화산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개소 후 화산면 일대 초중학생들에게 돌봄과 교육, 각종 문화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래된 센터건물 내 환경개선이 시급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센터내부 전체에 도배를 새롭게 해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래된 책상, 의자, 책장, 수납장 등을 교체해 아동들이 센터에 오랜 시간 머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지점장 고현상)에서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은 "농촌의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와 1365 자원봉사포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과 연계해 양파 주산지인 완주군 고산면 일원에서 양파 수확 농촌봉사활동을 9일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지난달 25일 양 기관의 업무협약 후 처음으로 협력해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영농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업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8일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화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02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어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전북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고산농협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양파 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농협은 사회공헌 전문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기관·단체에게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촌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법국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지난 5월부터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파종기, 용도에 맞게

농진청, "작물 재배양식 등 고려해 사용해야 성능 최적"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영농철 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종기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법,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일손 부족 현상에 대비하도록 조언했다.

파종기는 재배 작물의 재배양식과 방법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

파종기는 재배지 상태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생기므로, 파종 전 재배지에서 돌이나 쪼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또한 로터베이터를 이용해 땅을 최대한 부드럽고 평탄하게 갈아준다.

비가 와서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파종상태가 불량해지므로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파종하는 것이 좋다.

종자를 준비할 때는 풍구 등을 이용해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해 파종 시 종자통에서 종자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파종기 사용 전에는 파종기를 공회전시켜 각 부위의 볼트와 너트에 풀림이 없는지, 동력 전달계통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파종되는 종자의 양을 확인하고 배종장치의 배종컵 크기나 열릴 정도를 조절해 적정 파종량을 설정한다. 파종은 파종기의 적정 작업속도로 하고, 선회할 때는



파종기를 들어 올린 후 이동한다. 파종기 종자통에 담겨 있는 종자의 양이 적으면 빈 포기가 발생하므로 작업 중 종자의 양을 수시로 확인하고 종자를 공급해 준다.

작업 후 종자통 안에 남은 종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파종기를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다. 낱이 쌓여 있는 부위는 기름걸레로 닦아 관리한다.

파종기별 특징과 작업 성능, 보급 등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mbr.ksa.go.kr)에서 '밭작물 파종·정식용 농기계' 책자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발농업기계화연구팀 최용 팀장은 "농기계는 용도에 맞게,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효과가 크며 '밭작물 영농시기에 맞춰 정식, 수확기 등 올바른 농기계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발생 '주의보'

전북 농기원, "노지고추 칼라병 예방 총체별레 방제를"

전북도는 최근 원예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매개충 방제와 예방, 진단을 당부했다.

전북도농업기술원(김하주 원장)은 최근 주요 원예작물인 고추 재배 포장에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일명 칼라병)와 패션프루트에서 오이 모자이크바이러스(CMV)의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바이러스병 발생 확산을 우려되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총채벌레류가 매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화훼류 등에 감염하는데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고추 잎과 열매에 원형무늬, 갈변, 뒤틀림의 이상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과일기형과 함께 고사되어 고추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진딧물이 매개하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는 고추, 패션프루트, 오이, 수박 등 40과 이상의 넓은 기주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패션프루트에서는 잎에 노란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면서 잎이 오글거리며 과일이 작아져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다.

농업현장에서는 수시로 꽃잎 속과 미소순부위, 잎 뒷면 등을 자세히 살펴 미소해충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고,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때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신속한 진단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방제 시에는 작용기작이 다른 전용 약제를 5~7일 간격으로 주기적이고 정밀하게 살포해야 한다. 주변 잡초 또한 매개충의 서식처이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잡초를 제거해야 효과적이다.

농업기술원 최민경 박사는 '원예작물에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병은 바이러스라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찰뿐 아니라 매개충 방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주변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희 기자

새만금개발청, '반크'와 청소년 홍보대사 양성 협약

새만금개발청은 9일 서울 투자진시관에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와 '글로벌 새만금 대한민국 청소년 홍보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새만

금 공부하고 외부에 소개해 지구촌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대사 양성에 힘을 모으게 된다.

글로벌 새만금 대한민국 청소년 홍보대사는 2023년 잼버리대회 개최, 재생에너지·수소경제, 빅데이터 등 미래 선도해나갈 대한민국과 스마트 도시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변화할 새만금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알리는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한다. /뉴시스